

초기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의 기초를 다져온 이영준 전 학장. 우리학교가 전개해 온 교양교육의 역사와 발자취를 따라가봤다.



무전공 입학 확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도와 관련한 구성원 여론을 살펴본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대학주보



활기로 가득 찬 '동아리 박람회'

양 캠퍼스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됐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청운관 앞마당에서(위 사진 두 장), 국제캠퍼스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대운동장에서(아래 사진 두 장) 열렸다. 김지영(기약 2024) 씨는 "생각보다 다양한 동아리를 알게 돼 대학생활 시작이 설렌다"고 말했다. 임현희(유전생명과학 2024) 씨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라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김동희, 서나은 기자)

의대 교수 성명서 발표...집단행동도 예고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최근 우리학교 의과대학(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연속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발표한 성명서에는 교수 집단 행동을 예고했으며 8일 발표한 성명서에는 우리학교의 30명 증원 신청과 관련해 총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사직서 제출 등 적극 행동할 것" 교수 99%, 증원에 반대

"경희대학교 의대 교수의회는 전공의와 의대 학생의 의견을 지지하며, 모아진 교수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공의에게 형사처벌이 시작되거나, 의대생 휴학 처리가 결정된다면 사직서 제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다. 해당 성명서에는 의대교수 292

명 중 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및 의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설문조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경희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한다(99%) ▲의과대학 학생의 휴학에 동의한다(81%) ▲전공의 의견과 행동에 동의한다(89%) ▲결직 해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포함한 교수들의 행동에 찬성한다(93%)의 결과가 나타났다.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우리신문은 의대 교수의회 김우식(내과학) 의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해당 성명을 발표한 배경으로 "성명문 속 내용은 협상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교수들이 전공의의 파업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하루빨리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단행동이 심각한 의료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성명서는 병원 의사로서의 사직이 아니라 의대 교수로서의 사직이므로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환자들을 맡겠다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함축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도 말했다. "전공의를 제외한 다른 의사들은 모두 정상 진료 중이고, 일부 환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파업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1, 2차 병원에서 해결되는 질병이 많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은 힘들지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뒷사정을 모르고 본다면 환자 입장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곧 폭탄은 터진다고 말했다.

증원 관련, 총장에 사과 요구 의대 교수 "협의내용 어겼다" 총장실 "미래를 위한 결정"

의대 교수의회는 지난 8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학교 '의대 증원 신청' 규모에 반대하며 총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4일, 우리학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30명 늘리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기획조정처는 "2025학년도에 당장 학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환경, 기자재 등을 최대한 맞추다 보니, 30명으로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는 학교 본부의 독단적인 신청이 아닌, 의대와 사전에 얘기가 된 사항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기획조정처는 "대학이 정원을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의대 학장 이하 관련된 분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측의 반응은 다르다.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증원 규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교수의회는 해당 성명서에서 "의대는 절차를 밟아 적정 증원 인원은 10명 이내임을 대학에 전달했지만, 총장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최종 의견을 무시한 채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며 "이는 의학 교육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로 총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경희대학교가 동조한 꼴이 됐다"며 총장의 공개 사과도 요구했다.

김 교수의회 의장은 "단과대학 증원은 구성원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인데, 의대 교수들이 논의를 통해 대학에 요청한 사안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항의의 표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의대에 우선 배정할 경우, 10명 남짓한 인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 "그것을 노리고 증원 신청을 했든 아니든 학교의 이기주의고 총장님의 이기주의다. 의대 측은 원칙대로 10명을 뽑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전문가 의견은 무시한 채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실은 "학교 전체와 미래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내린 결론"이라며 "의대 측에선 현실적 장벽 때문에 10명 이상 증원은 어렵다고 밝혔지만, 우리학교는 앞으로도 증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30명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에서 최소, 최대 인원을 적어 내라고 한 상황에서 최소 인원 30명은 관련 회의체에서 동의했다"며 "다만 최대 인원을 논의할 당시 논쟁이 있었고 총장 지시하에 최대 인원 50명으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장실에서 언급한 회의체에는 의무부총장, 기획조정처장 등 필수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한다.

▶ 3면으로 이어짐

사령

명 <정기자>
하시연(미디어학 2023)
장해린(사회학 2022)
김나희(주거환경학 2022)